스포츠동아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sportsdonga.com 10판

‘K리그 블루칩’ 전북 이재성의 새로운 도전

“박지성 선배처럼 유럽을 휘젓고 싶다”

2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커피숍에서 스포츠동아와 만난 전북현대 이재성은 치열했던 어제와 오늘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는 항상 꿈꾸는 삶을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목표를 바라본다. 유럽 진출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새로운 도약을 노리는 이재성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신인들의 무덤’ 전북에서 꿈같은 3년
중동·중국 러브콜에 살짝 흔들렸지만
돈 보다 중요한 가치, 유럽무대 도전
공격전개 장점 ‘제2의 박지성’ 꿈꾼다

“쟤가 그 친구? 대단한 물건인데…. 아주 흥미롭겠어.”

2014년 1월,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전북현대 선수단의 첫 소집훈련을 유심히 지켜보던 최강희(57) 감독은 갓 피어난 새싹을 보고는 활짝 웃었다. 고려대를 떠나 ‘녹색군단’의 일원으로 합류한 신예 이재성(24)의 밝은 미래를 직감한 듯했다. 크지 않은 체격, 여드름 송송 난 앳된 영건은 전북 클럽하우스 훈련장에서 겁 없이 달려들었다. 눈치도 보지 않았다. 과감하게 볼을 터치했고, 빠르게 공간을 파고들었다. 오래 전부터 베테랑을 중용해온 최 감독이지만, “첫눈에 ‘뽕’ 갔다”며 당시를 돌아봤다.

아니나 다를까. 신인들의 생존율이 유독 낮아 악명이 자자한 전북에서 이재성은 금세 한 자리를 꿰찼다. 첫 해부터 꾸준한 기회를 얻었다. 클래식 26경기(4골·3도움)에 출전했고, 2014인천아시안게임 대표로 발탁돼 금메달로 병역면제 혜택을 얻었다. ‘2년차 징크스’도 없었다. 클래식에선 지난해 34경기(7골·5도움), 올해 32경기(3골·11도움)에 나섰다. 입단 2년간 대선배 이동국(37)과 한 방을 쓴 그는 올해 초 드디어(?) 작은 자유를 얻었다. 이동국은 “실력이 다르니, 재성이도 빨리 ‘방졸’을 면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웃었다. “동국이 형은 훈련 때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 목청을 높이면서도 재성이에게는 너무 관대했다”는 것이 주변 선배들의 즐거운 회고다.

프로 데뷔 이후 국내외를 넘나들며 매 시즌 꾸준히 우승의 기쁨을 맛본 이재성은 진정한 ‘거취의 자유’를 얻었다. 클래식 2연패(2014·2015년)에 이어 올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후 전북은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가도 좋다”며 이재성의 해외 도전을 허락했다. 최 감독도 “명예(유럽)를 택하든, 실리(아시아)를 택하든 철저히 본인의 자유”라며 3년간 함께한 애제자의 또 다른 도전을 응원했다.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남은 26일 이재성을 서울 광화문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전북에서 3년간 계속 꿈을 꿨고, 꿈을 꾸고 있다”는 그의 어제와 오늘, 내일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어제

-전북에서 정말 대단한 시간을 보냈다.

“계속 꿈꾸는 시간이었다. 누구도 내가 여기까지 성장하리라곤 생각도 못했다. 솔직히 ‘노력형’ 선수는 아니었다. 주변을 보면 난 ‘운 좋은’ 선수에 가깝다. 첫 프로 전지훈련 때 같은 포지션의 선배(이승기·28)가 대표팀에 차출돼 연습경기 출전 기회가 생겼다. 신인이라 그저 많이 뛰자는 생각뿐이었다. 데뷔 때부터 한 방을 쓴 (이)동국이 형이 많이 도와줬다.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배움이었다. 어떻게 몸 관리를 할지, 전북 공격수는 어떻게 뛰어야 할지 쉼 없이 느끼고 고민했다.”

-신인들의 무덤에서 살아남았다.

“2013년 9월인가, 전북이 지목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신인들의 자리가 좁다는 생각에 많이 망설였다. 두렵기도 했다. 그런데 안주하기는 더 싫었다. 전북에서 성공하면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려대 재학 중에 잠시 일본 진출을 생각한 적이 있지만, 그건 싫었다. 둘째 형(이재권·29·대구FC)의 ‘조금이라도 빨리 프로에 가라’는 조언이 전북에 가기로 결심한 배경이었다. 대학 은사님인 서동원 감독님 앞에서 프로행 결심을 말씀드린 뒤 펑펑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6면으로 이어집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좌혜경·김청조 기자

KBO리그 저연봉 선수들, 해외훈련 그림의 떡

급여 미지급 비활동기간 개인훈련 양극화
가불 신청해 해외 훈련…일부는 생계 알바

2017년 1월에는 KBO리그에 소속된 모든 선수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 이는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는 1월15일부터 해외전지훈련에 한해 단체 훈련이 허용됐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비활동기간 준수는 선수들의 기본권으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결의했고, 각 구단도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두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프로야구의 부익부빈익빈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1월이기도 하다. 규정에 따라 선수들은 1월에 구단 클럽하우스나 실내 훈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코치에게 지도 받을 수는 없다. 편법으로 단체훈련이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 결정으로 매년 1월15일경 출발했던 스프링캠프는 올해부터 2월 초로 변경됐다.

프로야구선수들의 업무 강도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세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1월15일부터 스프링캠프가 시작되고, 시즌이 종료된 후 11월 비주전 선수들은 마무리 훈련에 참가해왔다. 12월은 구단의 각종 교육 및 시상식, 행사 등이 이어졌다. 사실상 오롯이 갖는 개인의 자유시간이 부족했다. 이에 따른 가정 내부의 갈등도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커졌다.

연봉이 지급되지 않는 12월과 1월의 훈련금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김성근 한화 감독은 2014년 12월 오키나와 훈련을 밀어 붙였지만 선수협과 구단 내부 선수들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김 감독은 당시 “45일(12월과 1월)의 공백은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것이다. 한 달 반을 쉬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본다”는 개인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겨우내 무조건 휴식을 취하는 KBO선수는 사실상 단 1명도 없다. 고액 연봉자 대다수는 12월과 1월 해외에서 개인 훈련을 한다.

4년 총액 100억원(구단 발표액)에 KIA에 입단한 최형우(33)는 1월 중순부터 괌에서 개인 훈련을 한다. LG 유니폼을 입은 차우찬(29)도 괌으로 떠난다. KIA 이범호(35)도 곧 해외에서 개인 훈련을 시작한다. 각 팀 주축 선수 대부분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최형우는 “국내에 남아있으면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자리도 많다. 따뜻한 곳에서 조용히 훈련을 하며 국가대표팀과 KIA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몸을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봉이 높지 않은 선수들은 갈 곳이 없다. 선수협은 전국 20개 트레이닝 센터와 협약을 맺고 훈련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구단 시설도 이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지난해 A구단 선수 몇 명은 구단에 ‘가불’을 신청하기도 했다. 새 시즌 급여를 미리 지급받아 해외에서 훈련하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감독의 강력한 요청으로 구단은 이를 승인했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